

일상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드는 바다의 가치 제2차 해양교육·문화 기본계획 확정

- 대국민 해양교육 확대, 미래인재 양성, K-해양문화 확산 등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에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양의 전략적 중요성과 교육·문화 분야의 빠른 디지털 전환 추세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특히, 국민의 해양소양*을 높이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유네스코(UNESCO)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인간과 해양이 영향을 주고 받음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역량인 "해양소양(Ocean Literacy)"을 강조

▣ 전국 각지 학교에서 더 쉽게 만나게 될 해양교육

해양수산부는 전국 학교에서 학생들이 해양교육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해양교육 관련 수업을 개발하고, 교원연수 확대와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의 해양 시민교육으로

시민들이 해양플라스틱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 속 해양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올림픽아드 등의 참여형 현장교육을 발굴하고, 2028년에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와 연계하여 유엔(UN) 청소년 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해양교육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형 해양소양 확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미래인재 양성·인공지능(AI) 기반 해양교육 등 해양교육문화의 혁신·산업화

해양수산 분야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발맞춰 미래 전문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이 해양 분야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로 심리 검사,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과 전문과정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민간 확산을 위한 산업화 또한 적극 추진한다.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맞춤형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해양교육과 해양문화를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공간의 제약 없이 체험하고 즐기는 해양문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해양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초광역권별로 해양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 시설의 전시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관광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 해양문화시설이 없는 중부내륙권과 호남권에 각각 국립청주해양과학관(2026), 국립 해양수산물박물관(2030 예정) 개관 추진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바다를 전국 어디서나 더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51-773-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보미 (051-773-5745)

제2차 기본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비전

국민의 삶에 “더 널리, 더 깊게” 스며드는 해양 교육·문화

기반 및 배경



여건 분석 (기회요인)

- ① 기후 해양변화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산 (기후위기 시대, 해양교육 필수화)
- ② 해양을 둘러싼 국내외 지력변화 (안보, 공급망, 북극항로 중요성 증대)
- ③ 디지털 AI 기술 대전환의 파급 (생성형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적용)
- ④ 체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험경제 대두 (지역체류형 관광, 가치소비 선호)



1차 계획 평가(2021~2025)

▶ 성과

- ① 해양 기본소양교육 기반 구축 (센터, 교과서, 늘봄학교)
- ② 다양한 해양문화활동 성숙 (해양올림픽피아드, 문화대장정 등)
- ③ 초광역권별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거점시설 확충)

▶ 한계

- ① 대중성 미흡: 인지도, 확장성 한계, 전문강사 부족 등
- ② 디지털 대응 미비: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교육문화 플랫폼 부족
- ③ 지역해양문화거점의 질적 고도화 필요: 운영 효율화, 복합거점화

더 널리 : 해양교육문화의 확산과 보편화

01. 대국민 기본교육화

정규학교 내 해양교육 본격 제공

- 학교 단위 해양교육 확대
- 전문인력 양성
- 국가교육과정 내 비중 확대



02. 글로벌 시민교육화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협력

- 해양시민과학 확산
- 해양행동 연계 체험형 교육
- UNOC4 참여로 해양교육의 글로벌 연계



더 깊게 : 해양교육문화의 심화·고도화

03. 혁신·산업화

전략교육화, 디지털 AI전환, 산업화

- 미래인재 양성 전략교육
- 디지털 AI전환
- 해양교육문화의 산업화



04. 경험경제 지역거점화

해양문화시설을 지역복합거점으로

- 시설 운영 효율화, 기능 강화
- 시설의 복합거점화
- K-해양문화 확산



2028 UN해양총회를 K-해양문화 융성의 계기로

1. 추진배경 및 성격

- (추진배경) 제1차 기본계획('21~'25)의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법정 계획* 수립 필요
 -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성격) 2026년~2030년까지의 5개년 법정 계획

2. 여건 분석 및 전략 방향 도출

- (여건 분석) 전지구적 기후·해양변화에 대한 위기 인식 확산으로 해양교육·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 해양안보·공급망 재편·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의 전략적 가치 확대에 따라 진로탐색 및 전략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필요성 대두
 - 디지털·AI 전환과 체류형 관광 등 국민의 여가소비방식 변화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콘텐츠 공급방식의 혁신 필요
- (전략 방향) UN해양총회를 매개로 해양교육·문화를 확산하고 혁신
 - (대국민 기본교육) 특별활동을 넘어 정규학교, 학과 교육과정에서 해양교육을 본격 제공하고, 역량 있는 교원·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글로벌 시민교육화) 해양교육을 글로벌 아젠다와 연계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행사를 통해 해양교육 참여 확대
 - (혁신·산업화)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해양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AI 전환 및 산업화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마련
 - (경험경제 지역거점화) 해양문화시설을 체험형 해양교육 및 K-해양 레저관광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해양문화의 확산 기반 마련

전략 1

해양교육의 대국민 기본교육화

1 학교 단위 해양교육 확산 기반 조성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의 수요(강사인력 파견, 창의력·생태감수성 함양)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 (초등) 학년별 교재 배부·강사 파견, (중등) 창의인재를 위한 융합과목 개발 추진, (고등) 일반계고교 대상 마케팅·기후변화 등 유망진로분야와 연계한 탐구수업 보급

2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해양교육 소전공 개설, 교원연수 확대 등 교원 역량 강화와 해양수산 교육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민간 전문강사 양성
 - * 갯벌생태해설사, 바다해설사, 해양환경교육사, 자연환경해설사, 해양문화해설사 등

3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활성화

- 국가 교육과정에 정합적인 학교급·교과별 해양교육 목표체계 수립, 해양교육자문단* 운영, 해양교육 협력기관 시범 지정**
 - * 교과서 집필진, 교사, 환경·과학 전문가, 한국창의재단 등 교육전문가 대상 해양소양 확산
 - ** 바다유치원·어촌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두는 협업기관 운영

전략 2

해양교육의 글로벌 시민교육화

1 해양시민과학의 확산

- 해양올림픽피아드·학교 내 융합교육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교육모델 확산, 지역 해양문제 해결형 시민과학 경진대회 개최

2 풀뿌리 해양행동 연계 체험형 해양교육

- 바다의날 기념 대국민 참여 해양정화활동 개최, 기업의 차세대 해양교육사업 투자 유치, 시민원탁회의 통한 해양정책탐구 확산

3 UNOC4 참여로 해양교육의 글로벌 연계

- 제4차 UN해양총회 계기 청소년 해양총회 개최, UNESCO·APEC을 활용한 국내 해양교육 성과의 대외 홍보, 한국형 해양소양 개념 및 평가체계 구축

전략 3

해양교육문화의 혁신·산업화

1 해양수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해양교육 확대

- 해양 분야 진로심리검사 및 맞춤형 상담 개발을 통한 해양진로 설계 지원, 북극항로 계약학과 등 전략분야 전문인력 양성, 해양분야 융합연구체계 구축

2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AI 전환

- 디지털·AI 혁신과 콘텐츠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교육플랫폼의 AI 전환 추진(챗봇 도입), 온라인 콘텐츠 다양화 및 해양교육게임 개발

3 해양교육문화의 산업화

- 해양교육문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부터 기업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

전략 4

해양문화의 경험경제 지역거점화

1 국립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 초광역권별 해양문화시설 확충, 운영효율화를 통한 교육·문화·연구·등 지역거점 역할 강화, 문화시설의 전시 기능 및 접근성 확대

* 초광역별 : 국립해양박물관, 인천해양박물관, 울진해양과학관, 청주해양과학관, 완도수산박물관

2 해양문화시설의 복합 거점화

- 지역 맞춤형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해양교육센터* 시범지정, 지역 문화행사·컨벤션 등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활용 확대

* (역할) 지역특성에 맞춘 현장교육을 개발·제공, 지역 내 전문강사 양성, 교육청·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내 해양교육 확산기반 마련

3 K-해양문화 확산

- 국립해양문화시설의 해양관광 기능 확대(바다의날 연계 행사 발굴 및 해양 레저관광협회 협업),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지역문화행사·예술창작 지원

제2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2026-2030)



비전 국민의 삶에 "더 널리, 더 깊게" 스며드는 해양 교육·문화



01 전국 각지 학교에서 더 쉽게 만나게 될 해양교육

정규학교 내 해양교육 본격 제공

- 학교 현장 수요에 맞춘 해양교육 확산
- 체계적인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한 정규 교육 체계화



02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의 해양 시민교육으로

실천 중심의 시민 해양교육 확대

- 시민과학 기반의 문제해결형 교육 모델 확산
- 실천적 해양 행동을 위한 체험 교육 제공
- UN해양총회 연계 글로벌 해양소양 강화



03 미래인재 양성·인공지능(AI) 기반 해양교육 등 해양교육문화의 혁신·산업화

해양교육의 목표·전달방식·운영구조 혁신

- 미래 전략분야 중심의 해양 전문인력 육성
-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 혁신
-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



04 공간의 제약없이 체험하고 즐기는 해양문화

해양문화시설을 지역의 복합문화거점으로

- 권역별 문화시설의 교육·연구 기능 고도화
- 지역 맞춤형 해양교육 복합거점 운영
- 지역 자원을 활용한 K-해양문화 가치 확산



전략 1 전국 각지 학교에서 더 쉽게 만나게 될 해양교육



1 학교 단위 해양교육 확산 기반 조성

- »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의 수요 (강사인력 파견, 창의력·생태 감수성 함양)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초등** 교육과정 연계 맞춤형 교재 보급 및 전문 강사 파견
- 중등** 창의인재를 위한 융합과목 개발 추진
- 고등** 마케팅, 기후변화 등 유망진료분야와 연계한 탐구수업 확대

2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 해양교육 소전공 개설, 교원연수 확대 등 교원 역량 강화와 해양수산 교육자격 보유자*를 활용한 민간 전문강사 양성

- * 갯벌생태해설사, 바다해설사, 해양환경교육사, 자연환경해설사, 해양문화해설사 등

3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해양교육 활성화

- » 국가 교육과정에 정합적인 학교급·교과별 해양교육 목표체계 수립, 해양교육 자문단 운영, 해양교육 협력기관 시범 지정**

- * 교과서 집필진, 교사, 환경·과학 전문가, 한국창의재단 등 교육전문가 대상 해양소양 확산
- ** 바다유치원·어촌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두는 협업기관 운영



전략 2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천 중심의 해양시민 교육으로



1 해양시민과학의 확산

- » 해양올림피아드·학교 내 융합교육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교육모델 확산**
- » 지역 해양문제 해결형 시민과학 **경진대회 개최**

2 풀뿌리 해양행동 연계 체험형 해양교육

- » 바다의날 기념 **대국민 참여 해양정화활동 개최**
- » 기업의 차세대 해양교육사업 **투자 유치**
- »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해양정책탐구 확산

3 UNOC4 참여로 해양교육의 글로벌 연계

- » 제4차 UN해양총회 계기 **청소년 해양총회 개최**
- » UNESCO·APEC을 활용한 국내 해양교육 성과의 **대외 홍보**
- » **한국형 해양소양** 개념 및 평가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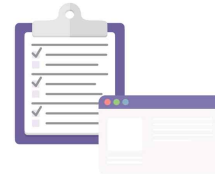
전략 3

미래인재 양성·인공지능(AI) 기반 해양교육 등 해양교육문화의 혁신·산업화



1 해양수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적 해양교육 확대

- » 해양 분야 **진로심리검사** 및 맞춤형 상담 개발을 통한 해양진로 설계 지원
- » 북극항로 계약학과 등 **전략분야 전문인력 양성**
- » 해양분야 **융합연구체계** 구축



2 해양교육문화의 디지털·AI 전환

- » 디지털·AI 혁신과 콘텐츠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교육플랫폼의 AI 전환** 추진 (챗봇 도입)
- » 온라인 콘텐츠 다양화 및 **해양교육게임** 개발



3 해양교육문화의 산업화

- » 해양교육문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부터 기업 성장까지 **패키지 지원**



1 국립해양문화시설 운영 효율화 및 기능 강화

- » 해양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초광역권별 지역거점 확충
- » 시설의 전시 기능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주요사업

국립해양박물관, 인천해양박물관, 울진해양과학관, 청주해양과학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2 해양문화시설의 복합 거점화

- » 지역 맞춤형 해양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해양교육센터* 시범지정
- » 지역 문화행사·컨벤션 등 생활 밀착형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활용 확대

역할

지역특성에 맞춘 현장교육을 개발·제공, 지역 내 전문강사 양성, 교육청·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 내 해양교육 확산기반 마련

3 K-해양문화 확산

- » 국립해양문화시설의 해양관광 기능 확대 (바다의 날 연계 행사 발굴)
- »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지역 문화행사·예술창작 지원

